제8차 KOSPO 탄소중립녹색성장위 열고 방안 논의  
  
  
  
이승우 한국남부발전 사장(왼쪽에서 3번째)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개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/사진제공=한국남부발전한국남부발전이 '제8차 KOSPO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'를 열고 '화력발전소의 최적 에너지 전환 방안'을 모색했다고 17일 밝혔다. 이날 위원회에서 권이균 공주대 교수는 '국내외 탄소포집·저장(CCS) 현황 및 청정 암모니아 대비 경쟁력'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. 권 교수는 화력발전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의 적용 비중을 최적 적용하기 위한 인적·물적 분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. 이어 토론을 통해 △기술 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경제성 확보 △기술개발 리스크 관리방안 △연관산업 활성화 등 화력발전소의 무탄소 전환 과정에서의 난관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.이승우 한국남부발전 사장은 "화력발전소가 미래에도 국가 에너지 공급의 일부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정부 탈탄소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무탄소 전환 방안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